

“유가 여성관의 이론 배경과 그 현대 사회적 성찰”에 대한 논평

박 선 미
(중앙대학교)

본 논의는 지금까지 대체로 유교의 여성관에 대한 연구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성을 강조하여 유교의 여성관이 대립적 구조로 남녀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유교의 여성관을 기존의 연구들이 단지 단편적이고 부정적으로 연구되어온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유교의 잘못으로 인해 조선사회가 불평등사회의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저자의 논의같이 유교의 여성관을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의 의문점을 저자가 논거로 삼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I. 맹자가 강조한 ‘여성에 대한 순종의 도’를 저자는 대장부의 조건문제를 논의하는데 부수적으로 말한 것뿐이므로 우리가 여성에게 순종의 도만을 강조한 것으로 유교적 여성관을 보고 있음은 잘못된 이해로 논의하고 있다. 물론 주제는 대장부의 조건문제이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집가서는 반드시 공경하고 조심하여 남편의 뜻을 어기지 말라고 하니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올바르게 여기는 것이 부녀자의 도리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분명 여성에게는 오로지 순종하는 것만이 최고의 도리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제조차 여성의 순종의 도

로 설정하지 않고 있음은 달리 보면 그 만큼 맹자가 궁극적인 인간상으로 대장부를 지향했을뿐, 여성에 대해서는 중요성의 인식도에서 훨씬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자는 이상적 인간상으로 통지자인 ‘군자’로 설정하였는데, 군자의 범주에 여성이 제외당하였다는 사실과 『논어』에서 ‘군자가 마음에 두는 것은 덕이고 소인이 마음에 두는 것은 땅이다’라고 언급하여 군자와 달리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상으로 소인을 설정하고 그 소인을 여자와 동일한 범주 내에 두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재고해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Ⅱ. 저자는 주로 기존의 여성관이 『주역』의 「역전」만을 인용하여 이해하고 있음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고 있다. 인용된 부분의 의미는 단지 상하의 차별만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항구한 도가 참뜻임을 강조하였다. 인용된 이 구절은 천지가 만물을 생하게 하고, 부부를 이르기까지와 부부로부터 이 사회가 시작됨을 강조한 것으로, 사회의 기반이 되는 부부라는 조직은 건곤이 영속하듯 하여야 사회가 유지됨을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부부로부터 인간사회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그 중요함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천지, 부자, 군신의 관계를 상하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 질서가 확립될 때 ‘예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예’는 『예기』에서 ‘하늘에 근본을 두었으며 땅의 형세의 높고 낮음을 드러내어 상하의 등급을 세운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본래의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해진 특정한 예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사회질서 확립의 제일조건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교는 존비의 명분에 따라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을 짓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직분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정명론’을 기초로 하였다. 이는 달리 말하면 상하간의 차등적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주역』의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곤의 위치는 유순하게 하늘의 명을 이어받는 것이다. 감히 스스로 주도권을 잡아 제 공적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계에서는 땅의 도리, 군신간에는 신하, 인간에게는 아내가 지켜야 할 도리다”라고 하였다. 이는 처의 도리는 주도권을 잡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강조된 것은 ‘삼종지도’인 것으로 여성의 사회적 성취가 막혀 있는 한 여성은 가정 속에서

남성의 보호아래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Ⅲ. 내외구별과 순종문제에서 저자는 보편성의 개념으로 ‘경(經)’과 특수성의 개념으로 ‘권(權)’을 설정하고 여성 자신의 의사로서의 선택권을 주었던 것으로 유교를 이해하였다. 그런데 내외구별 내지 부부유별에 대한 논의를 다루지 않고, 순종과 관련하여 정절의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어느 종교 어느 사회이든지 우리는 보편성이 있는 대신에 특수성을 띠고 있으며, 유교윤리도 마찬가지로 변할 수 없는 ‘경’이 있는 대신에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권’이 있다. 그럼 여기서 과연 내외구별과 정절의 논의가 단지 보편과 특수성의 원리 속에서만 용해될 수 있는 것인가의 의문이 든다. 그러나 저자가 정절의 문제만을 논거로 제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이 문제만을 취급하고자 한다. 여성의 정을 천도에 합치된 것으로 본 유교는 정(眞)에 관해 ‘하나에 쫓아서 마치는 것’(주역)으로 보고, “부인의 덕은 신(信)이므로 한 번 혼례를 치르면 몸이 마칠 때까지 고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편이 죽어도 시집가지 않는다(『소학』)고 하였으며, 개가하는 것을 실절(『근사록』)과 동일하게 인식하였던 것이 주자학의 정조관이다. 그런데 저자는 정이천의 이러한 생각이 이상적인 것일 뿐, 현세적인 것에서는 충분히 열려진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권’의 개념으로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결코 당시의 관료들이 저자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고 운용하고 있다는 데에 저자의 논의에 찬성할 수 없다. 성종 8년에 마련된 재가녀의 논의건에 관해 살펴보면 46명의 중신 가운데 단지 4인만이 소위 ‘재가녀금지법’을 입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들이 내세운 근거를 살펴보면 “예전에 정자가 말하기를 ‘재가하는 것은 단지 후세에 추위에 주려 죽을까 두려워한 것이다. 그러나 실절하는 일은 지극히 크고 죽은 일은 지극히 작다’고 하였고, 장횡거는 ‘사람이 실절한 자를 취하여 짝을 삼으면 이것도 또한 실절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한 번 더불어 초례를 치렀으면 중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 부인의 도입니다. 만약 두 지아비를 고쳐 산다면 이것을 금수와 더불어 어찌 가리겠습니까”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성종이 “신은 부덕이니 한 번 더불어 함께 하였으면 중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다. … 굶주려 죽은 일은 적은 것이고 실절하는 것은 큰 것이다”(『성종실록』)라고 하여 재가녀

에 대한 제재조치를 만들었다. 당시의 관료들은 “부녀의 도리는 스스로 정절을 지키는 것을 주로 삼는다”(『태조실록』)라고 한다든지, “부부는 인륜의 근본이기 때문에 부인은 삼종지의는 있어도 개가하는 도리는 있지 않다”라고 공공연하게 언급될 정도였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주자학의 여성관은 결코 여성의 정절문제를 열려진 사고로 인식하기보다는 당시의 유학자들이 ‘실절’로 인식한 것처럼 여성이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는 것으로 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이러한 유교의 여성관이 역사현실이라 할 가부장 사회하는 조건과 맞물려 더욱 공고화된 것조차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사적 보편법칙으로 여성의 정절의 강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유교가 적극적으로 강조한 여성에 대한 정조관이 달라지지 않음은 사실이다.

IV. 신유학의 존재론과 이기론의 인간학적 의미에 대해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간으로서의 남녀는 음과 양이 서로 교역하여 새롭게 태어난 동일한 존재이다. 둘째, 이귀기천설(理貴氣賤說)을 전제로 하여 기철학이 남녀평등의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견해는 잘못된 견해이다.

첫째의 경우, 인간으로서의 남녀는 음과 양이 서로 교역하여 새롭게 태어난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 불분명하다. 논거로 들고 있는 ‘동일성’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럼 유교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남녀에 관한 생각이라 할 ‘남녀유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둘째의 경우, 기존의 견해들은 아마 일반적인 이해에 입각한 논의로서 생각할 수 있다. ‘리’는 만물을 이루는 이치이고 ‘기’는 만물의 구체적인 모습을 만드는 요소이다.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였고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원리를 도덕적 입장에서 강조하였기 때문에 리를 중심으로 한 철학을 세웠다. 한편 사물의 원리인 리와 달리 기는 구체적인 사물을 이루는 바탕인 것으로 감각할 수 있는 요소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므로 기철학이 자연의 변화를 주된 관심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철학이 도덕성을 강조한 것과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철학이 도덕성을 강조하여 부자, 군신, 부부 등의 관계를 모

두 변할 수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지배자들의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음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주기철학이나 주리철학은 단지 기나 리를 한 부분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주기철학이 변화성에 대해 열려진 사고로 보고 있는 기존의 견해는 상대적인 이해로 봐야하지 결코 절대적인 논의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단편적, 절대적으로 기철학은 진보적이고 이철학은 보수적이라는 양립구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견해에 관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V. 끝으로 저자는 『주역』의 ‘가인괘(家人卦)’를 인용하면서 집안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때 집안의 도가 바르게 되며, 집안이 다스려지면 자연히 천하가 다스려져 안정과 사회유지가 될 수 있다는 논의 속에서 유교의 장점을 찾고 있다. 즉 유교는 남녀라는 개념의 부부라는 문화적 개념으로 상징하여 부부를 인간사회의 모든 질서의 시작으로 보고 그 만큼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다. 유교는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정명론(正名論)을 펼치게 되었다. 즉 군주가 더 이상 군주가 아니고, 신하가 더 이상 신하가 아니며,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고, 자식이 더 이상 자식이 아닌 무질서한 사회에서는 이름에 따라 규정된 명분과 책임이 다시 올바르게 잡혀져 있어야만 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근본적으로 ‘화(和)’의 세계관을 펴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상하차등의 분명한 인간관계들 사이에 이른바 조화 내지 화합을 강조하였다. 이는 인간들 사이의 조화와 화합을 중요한 것으로 설득하여 체제의 무리 없는 유지에 힘을 썼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이 점을 혹자는 한 사회내의 인간관계의 화합과 조화적 유지에만 힘쓰고, 경제적 관계의 개선에는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요소로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현대적 시각에서 이러한 정명론과 화적 세계관은 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우리가 속해져 있는 사회가 유지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식으로 인해 사회의 유지를 이룩할 수 있다는 인간의지의 강조로 이어지게 한다. 물질의 추구를 넘어서 인간이 서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정신적 윤리적 가치질서’인 도를 통해 인간들의 진정한 질서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유교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유교가 궁극적으로 현세의 인간들의 삶과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두고 있음은 인간의지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이 우리

가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도덕적, 정신적 훈련이라 할 심성연마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해볼 여지가 있다. 한편 이름에 맞는 제 본분을 각자 다하여 사회구성원이 질서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이름에 알맞는 역할이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요구되어진다.

A Comment on "The Confucius View of Woman and its Meaning in the Modern Society"

Sun Mi Park
(Jung Ang Univ.)

This study has its meaning in that it criticizes many of studies on woman have been based on the confucious view of woman which is man's superiority over woman. According to this study many of studies on woman have paid attentions to fragmently or negatively confucious view of woman. This study assumed that most of studies of women in Korea have been carried ,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to identify the confucious view of woman which was based on man's superiority over woman.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d that Cho Sun dynasty had no responsibility for Korean anti-feminism.

But I believe there are many contradictable problems about the confucious view of woman. The questions which I want to propose and discuss are the followings:

I . It seems to me that this study assumed Mencius'(孟子) saying of 'Tao(道) of woman's submissiveness to man had little relation with anti-feminism, for this saying was simply added to the prepositions of a Great Man(大丈夫 or 君子). In other words, Mungtz was concerned with what a Great Man is and does, not woman. We may agree in part to his opinion. But it was his great mistake to explain to his pupils that

woman should obey her man(especially her husband). He really had no concern of 'Tao of woman's submissiveness itself as his topic. Judging from this and all his works, he excluded from his main thought a view of woman as a different sex from man. In the long run we can conclude that Mencius had no concern of woman's dignity or social status.

On the base of this fact, it seems to me that Mencius was and is a thoughtful anti-feminist.

II. This study is focused on understanding of 'the view of woman being traditionally in existence' on the basis of the thought of I Ching(周易). The writer quoted some contents from The Appendixes in I Ching in order to understand it. Their main stream of thought is that heaven and earth produce all things low and high. Heaven is represented as Khien(乾), earth as Khwan(坤). The universe is based on the changing and transformations of Khien & Khwan. A society is produced by a married couple, that is, a man and a woman. And the society is based on the same law. Khien can be replaced by man, Khwan by woman. In other words, a society can be sustained only by the enduring relationship of married couple(man and woman). Accepting this assumption, we can conclude that the view of woman presented in the Appendixes(易典) of I Ching is to identify man's superiority over woman with the natural law to sustain the society and the universe. The practice of marriage, to say, to become a couple is very significant to human being and human society, for the human society can be sustained by being a couple of a man and a woman.

The problem is that the main thought of Appendixes of I Ching is based on the hierachical order such as Heaven-Earth(天地) Father-Son(父子), King-Subject(君臣). It seems to us that the (social) virtues could be believed to be sustained on the basis of this hierachical order. So to speak, the virtues can be established if only Heaven has power over Earth, Father over son, king subject. Judging from this fact, we can conclude that the thought of I Ching may have been based on the non-faminism.

III. The writer understands that Confucianism gives women the opportunity to choose one of two life-principles, Ching(經) as universal virtue and authority(權) as particular virtue. The one is unchangible, the other is changed as the time goes. Ching remains unchanged through the ages, while authority is changed.

According to this study, the relationship of man to woman, heaven to earth, king to subject belongs to Ching, but woman's chastity belongs to authority. If so, it is mattered whether this preposition can be accepted.

Confucianism looks upon woman's chastity as being with only one man(her husband) even after his death. Chu Hsi also insisted that if she married once got remarried, a woman should lose woman's chastity. He thought of a woman's remarriage as losing her chastity.

In the time of Cho Sun dynasty, Act of prohibiting woman's remarriage was passed by only four of chief ministers in the chief-minister conference. The reason was that woman's remarriage should be equivalent to a animal's lifestyle. King Sung(成宗) said that chastity was one of woman's virtues, and it should be kept through her life. Some ministers believed the way of a woman lay in keeping the chastity for herself.

It seems, In the long run, to me that woman's chastity may have been emphasized not on the basis of Ching(as universal virtue), but authority(as particular virtue). I think that the confucious view of woman has been focused on man's superiority.

IV. This study seems to summarize the ontology of Neo-confucianism and the anthropological meaning of I Ki theory(理氣論) in the two points. First, every human being came to the world either in the form of Man or in the form of Woman through endless interchanging of Yin(陰) and Yang(陽). Regardless to the sex, therefore, every human being is equal as long as Yin and Yang are each other interchanging. Second, Ki philosophy has the equal evaluation to man and woman each other on the basis of the theory that I(理) is high, and Ki(氣) is low.

But I want to pay attention to the first point. It seems to have some problem.

The equality of man and woman cannot be proved by a fact that they come into the world through interchanging of Yin and Yang. I am afraid that I can't find any foundation for the equality of man and woman as the writer insists in the first point.

In the case of the second point, I am afraid we can't agree the writer's opinion that I(理) is a conservative principle, for it is unchangeable, and Ki(氣) is a progressive, for it is changeable, for it is changeable.

V. Citing the Kia Zan Hexagram(家人卦), the writer seems to think the confucianism's strong point lies in the principle that if housekeeper-women should do their best and keep their homes harmonious, a state can be sustained stably including homes, and societies. The confucianism makes, in other words, us aware of the importance of home that is consisted of a couple of a man and a woman, being equal as human beings. It insists that all of the social hierarchical powers, such as king, minister, subject, father, son, and so on, should be exercised, identified with their mor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the other side, the confucianism holds fast to the 'harmony(和)' of the world, so that it may try to keep people and societies harmonious. Regardless to their social statuses, all the human beings should be harmonized with themselves within the will of Heaven and Earth. This is another strong point of the confucianism.

On the basis of these two points, this study concludes the confucianism has a value hierarchy that can stably sustain a society, a state, for it makes human beings, regardless to their sex, harmonious. We can agree to the writer's advocacy that the confucianism has persistently focused on human beings' ontology itself, their life and will. Then we, human beings, should do our best to harmonize ourselves with the will of Heaven and Earth, and keep a value hierarchy given equally by Heaven and Earth.

But I think that we should answer what a value hierarchy given to human beings was and is, what woman as a social member has to do in this modern society.